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9. 16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UN, 사상 첫 '테러 희생자 세계 회의' 개최

- 9.8 UN은 「안토니오 구테흐스」 사무총장 주최로 美 뉴욕 UN본부에서 이틀간 '2022년 테러 희생자 세계 회의'를 개최, 추모식과 함께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

* 생존자·외교관·시민사회·학계 및 민간부문의 대표자를 포함한 600여명 참석

○ 국제표준화기구(ISO), 총기·탄약 판매상 '상품분류코드*' 부여

- 9.10 언론은 ISO가 총기 규제론자들의 요구를 수용, 총기·탄약 판매상에 대한 '상품분류코드'를 신설해 앞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총기구매 여부 등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도

* 신용카드 가맹점이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업종별로 구분하는 코드로서 지금까지는 총기상에 대한 분류코드가 없어 대량·불법 구매 여부 파악 불가

미주

○ 美, '정식재판 未회부' 9.11 테러 주모자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

- 9.10 美 언론은 '9.11 테러' 기획자인 「칼리드 모하메드」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정식재판을 받지 못한 채 20년 가까이 수감중이며, 물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인해 유죄판결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보도

* 물고문에 의한 同인의 자백은 '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'에 의해 증거 채택 불가

○ 美 「바이든」, 9.11 추모식에서 테러 대응의지 천명

- 9.11 美 「바이든」 대통령은 9.11 테러 21주년 추모식 연설에서 최근 알카에다 수괴 「알 자와히리」 제거를 언급하며, 앞으로도 테러리스트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

* 한편 「바이든」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극우세력을 경계, 민주주의 수호 의무도 함께 강조

○ **美 법원, 'ISIS 가담 시도' 미국인 부부 유죄 선고**

- 9.12 美 법원은 극단주의 콘텐츠를 온라인에 게시·배포하고 “알라를 위해 미국인들과 싸우고 살해할 용의가 있다”며 지난 3월 ISIS에 가담하기 위해 화물선 탑승을 시도하다 체포된 부부에게 유죄를 선고

○ **美 상원, 자국 內 '극단세력' 민주주의 위협 경고**

- 9.12 美 「마크 워너」 상원 정보위원장은 지난해 1월 발생한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* 등 자국의 분열 상황을 지적하면서, 現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테러리스트가 아닌 “국내의 극단세력”이라고 경고

* '21.1.6 극우·극단주의 세력들이 美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5명 사망(시위대 4, 경찰 1)

아 · 태평양

○ **법원, 테러자금 지원 혐의 불법체류 외국인 징역 1년 6월 선고**

- 9.8 대전지법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지난 '20년 5월 21일부터 8월까지 테러단체로 지정된 해외조직 '타브히드 바 지하드(TvJ)' 간부에게 총 140만원을 송금한 외국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

* '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' 위반 혐의

중 동

○ **예멘, 최근 무장세력 '테러' 급증 결과 향후 정세 악화 예상**

- 9.8 외신은 지난 4월 UN 중재로 성사된 예멘정부-후티반군 간 휴전 협정이 10월까지 연장되었음에도, AQAP(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) 및 후티반군 테러 증가로 향후 예멘 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평가

* 지난 8.14 후티반군은 드론 등으로 예멘 정부군 장악 지역을 공격, 정부군 4명 사망·19명 부상

파키스탄, 마스지드(이슬람 사원) 겨냥 자살폭탄테러

- '16.9.27, 오후 아프간과의 접경지인 파키스탄의 북서부 부족자치지역 (FATA) 관할 안바르 마을 소재 마스지드에서 진행된 금요일예배 中 괴한의 자살폭탄테러로 24명 사망·28명 부상
- 사건 당시 200여명의 무슬림들이 마스지드에 모여 예배중인 가운데, 테러범은 “신은 위대하다”라고 외친 후 자살폭탄테러를 자행
 - * 현지 정부 관계자는 사망자 中 10살 이하 어린이가 4명 포함되어 있다고 부언
- 공격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없었으나 언론은 파키스탄탈레반(TTP)이 이 지역에서 그간 종교시설·학교·법원 대상 자폭공격을 빈번 자행 해온 전례를 들어 이번 테러도 이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
 - * 정부의 '14.6 시작된 대대적 TTP 소탕 작전에도 불구하고, 同 조직은 같은 해 12월 페샤와르 軍 부설학교를 공격해 150여명을 살해하는 등 민간인 대상 테러 지속
- 한편, 파키스탄 「나와즈 샤리프」 총리는 “테러범들이 어떠한 비겁한 공격을 자행해도 정부의 테러 근절 의지를 꺾을 수 없다”며, 강경 대응 다짐

< 파키스탄 탈레반 (TTP) >

- **(결성)** '07. 12 알카에다가 ‘파키스탄의 FATA(부족자치지역) 內 군사 작전에 대한 저항 및 무장투쟁 강화’를 위해 13개 소규모 무장단체들을 연합하여 결성한 극단주의 테러단체('11.7 UN 지정)



- **(활동지역)** 파키스탄 FATA 등 아프간과의 접경지역 일대
- **(활동수법)** 부족지역 內 게릴라戰 및 페샤와르 등 주요 도시 폭탄테러 등을 자행, 중앙 집권적인 아프간 탈레반과 달리 부족별 조직이 자율적으로 점조직 활동
- **(주요테러)** △'07.12 라왈핀디에서 前파키스탄 총리 암살 △'11.5 페샤와르 국경수비대 대상 자폭테러 △'13.9 페샤와르에서 교회 대상 자폭테러 △'14.6 카라치市 진나국제공항 동시다발 공격 등